베네수엘라의 최근 정치·경제 동향

최근 베네수엘라 정정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음. **일부 군부세력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퇴진요구**와 **볼리바르화에 대한 변동환율제 채택**으로 정치·경제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**국가위험도가 상승**하고 있음.

Ⅰ.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불만 고조

- 1998년 집권 이후 철권통치를 계속하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한 **공군장교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표면화**되었음. 현역 공군대령인 Soto는 TV로 생 중계된 공개 토론회에서 차베스 대통령의 하야와 민간 임시정부 구성을 주장하였고, 이에 동조하는 일부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면서, 정국불안이 고조되고 있음.

- **차베스 대통령**은 취임 이후 각종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**독단적인 행태**를 보여, 노동·산업계 및 종교지도자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지속해 왔음. 특히 2001년 11월 무리하게 49개 경제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12월 전경련 및 노동계의 총파업을 야기,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하였음.

- 또한 금번 사태의 요인에는 ① 쿠바의 카스트로를 추종하는 외교노선 ② 언론탄압에 대한 국제인권위원회의 비난 ③ 차베스의 사병화 시도에 대한 군부의 반발 ④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도 지적되고 있음.

Ⅱ. 볼리바르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

- 베네수엘라 통화인 볼리바르화가 변동환율제 **시행 첫날인 2월 13일** 국민들의 달러화 구입을 위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의 영향으로 전일 달러당 792.5볼리바르에서 **19% 하락한** 달러당 980.5볼리바르로 마감되었음.

- 최근까지 아르헨티나와 함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던 베네수엘라가 **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한 배경**으로는 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감소 ② 최근의 국내 정치불안 등을 들 수 있음.

- 베네수엘라는 2002년 들어서만 환율방어를 위한 정부 외환보유액 방출로 외환보유액이 20억 달러 이상 감소, 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05.4억 달러로 2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음.

Ⅲ. 향후 전망

- **정치면**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부의 계속적인 충성을 확인하고 시위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으나 그동안 내연하던 군부 및 일반서민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됨.

- 경제적으로는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으로 IMF로부터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. 베네수엘라 정부는 환율의 조기 안정을 위해 정부의 긴축정책 강화와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시도하고 있음.

- 그러나 그동안 볼리바르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일반적인 의견으로, 볼리바르화의 **평가절하 추세는 지속**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유가 및 국내 정치동향이 환율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.

- **미국**은 내부보고서를 근거로 베네수엘라의 경우 볼리바르화 혁명(자유변동환율제 이행)과 유가 하락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차베스 정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**콜롬비아, 아르헨티나와 함께 국가위험도 상승이 우려되는 국가로 동국을 지적하였음.**